

## 더불어민주당의 '오만' 반발 거세다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 후보 공모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공천작업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참여자격 심사 등에 제멋대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중앙당의 입맛에 따라 입지자의 정치 행보를 쥐락펴락하는 등 절대우위를 점한 호남의 높은 지지도에 취해 민심에 반하는 오만과 구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기준은 그중 대표적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1일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자격을 박탈했다. 민주당은 박 전 군수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고도 돌연 사퇴한 책임을 물어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26일 '당내공

경선 참여자격 등 입맛 따라 제멋대로 잣대 '파열음' 전략공천설 등 구태 반복... "지역민 볼모" 비난 봇물

천을 무력하게 한 후보' 등에 대한 자격 박탈을 골자로 당규를 개정했고, 박 전 군수는 개정된 당규에 따라 후보에서 제외되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썼다.

박 전 군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전 군수 측은 "당의 요청을 통한 복당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개정된 당규를 적용,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짜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신안군수 경선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박 전 군수 '제거' 등 음모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신안군수 후보경선에는 그간 거론되지 않았던 전경배씨가 지난 4일 예비후보 등

록을 마치고 경선후보 등록을 신청, 중앙당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전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추미에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지내는 등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다.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도 마찬가지다.

광주시당이 입 정장에 대해 예외적 적격판정을 내렸지만, 중앙당 최고위는 지난달 30일 공천 원칙을 이유로 배제를 결정하며 이를 뒤집었다.

임 정장은 "중앙당에 두 차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대답도 들

지 못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중훈 순천시장의 경우 뇌물수수 전력에도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해 뒷말을 낳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는 전남도당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적격성 판단을 의뢰한 조 시장에 대해 적격판정을 내렸다. 조 시장은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된 경력이 있다.

당내 경쟁상대인 허석 예비후보는 조 시장에 대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를 도왔다는 해당행위 의혹을 받고 있고, 뇌물수수 3년여를 복역한, 그래서 적폐청산 대상이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고무줄 잣대는 이번 지방선거 내내 이어지고 있다.

전남지사만 하더라도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어긴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예외'로 인정해 구제했고, 장관 체 전 전남교육감의 입당을 두고서는 두 차례 보류 끝에 '조건부 입당'을 승인하는 등 입맛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도당에서 복당의 발목이 잡혔지만 최고위에서 뒤집혔고, 선관위로부터 '사조직 동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등 전력이 있는 함평군수 입지자 윤 모 전 함평 나비골농협조합장의 경우 전남도당 예비후보 검증을 통과해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유권자의 선택이 아닌 당이 짚은 사람을 선택하라는 민주당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지역민들을 볼모로 잡는 오만의 극치다"고 지적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 서갑, 박혜자·송갑석 등록  
영암·무안·신안, 백재욱·서삼석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전남지역 2곳의 국회의원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12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광주 서갑 재선거는 박혜자 전 의원과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앞서 후보등록을 마감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등록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후보들에 대한 면접심사 이후 경선을 실시, 오는 23일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무등산 입석대



화순 적벽



담양 금성산성

##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광주·화순·담양 일대 경관·지질학적 가치 인정

무등산 주상절리대·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적벽 등 무등산권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됐다.

무등산권이 수려한 경관과 함께 국제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음에 따라 지역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12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204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광주·담양·화순이 신청한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세계적으로는 137번째, 국내에서는 제주도·정송군에 이어 3번째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광주와 담양전역, 화순 일부를 포함한 1,051.36km<sup>2</sup>의 면적에 해당하며, 지질명소는 무등산 정상 3봉(천·지·인왕봉)·서석대·입석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적벽 등 20개소, 역사문화명소는 아시아문화전당·죽녹원 등 42개소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중요성뿐 아니라 생태학·고고학·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곳으로 보전·교육·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제도다.

이로써 무등산권역이 세계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담양과 화순, 아시아문화전당

및 5·18기념관 등과 연계된 관광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인증과 관련, 전남도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단장 허민 부총장)은 내달 12일 광주시의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와 연계해 범시·도민 잔치 한마당을 열 계획이다.

특히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인증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의의와 함께 향후 세계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무등산권지질공원은 지난 2012년 '무등산 주상절리대 일대 학술조사 및 세계유산 등재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광주·담양·화순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지질유산의 가치규명 및 신규 지질명소 개발을 위해 학술조사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한 연구성과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위한 초석이 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무등산권역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12월 환경부로부터 국내 6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2016년 11월 유네스코 세

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무등산과 이를 둘러싼 광주·담양·화순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쾌거이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회원으로써 국제관광시장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상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도심 속 새로운 중심, 브랜드에 교육을 더하다

## e편한세상 순천

4월 13일 주택전시관 오픈



총 6회 수상

총 605세대 분양

분양문의 061-743-5100

www.daelim-apt.co.kr

※ 상기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개요 및 분양세대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